

제13회 난치병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 치사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봉축기간의 바쁜 일정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제13회 3000배 철야정진 나눔 결사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의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은 모든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고 우리 각자가 스스로 존엄하고 평등함을 깨닫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부단하지만, 무명으로 가려진 우리는 아직도 존재의 실상을 바로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서만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고 대자대비하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정성스런 마음으로 철야정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난치병에 신음하는 어린 생명들이 우리의 정성스런 기도정진의 원력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불제자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동량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정성어린 발원을 힘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동참하고 있는 불교복지 실천가 여러분!

이번으로 3000배 철야 정진이 어느새 13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소 불교사회복지와 자원봉사 현장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으로 더욱 헌신하고, 이렇게 자신을 비우는 수행에 매진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교사회복지의 특성을 잘 살린 보살행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불교복지와 봉사는 여러 가지 불교 수행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승한方便입니다. 과보를 바라지 않고 보시를 실천하는 공덕은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무주상보시의 공덕이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내 자신의 아픔은 크지만, 남의 아픔은 안보이고, 자신의 허물은 잘 모르지만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 것이 미혹한 중생의 한계입니다. 그러기에 칠보로써 온 세상을 장엄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경계가 없는 무주상보시의 실천은 그 어떤 일보다 값진 보상행입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하나 된 마음으로,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화현임을 바로 보고 깨달아 나눔과 복지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발현이며 대승보살의 수행인 것입니다.

매년 이 뜻 깊은 행사에 동참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산하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단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특별히 동참하고 계신 직지사, 고운사, 선운사, 신륵사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에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2557년 4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